romosomes) was present in all 16 lines studied; the median chromosome number for lines derived from primary tumors was 70, whereas for lines originating from metastatic or recurrent tumors, it was 54. Karyotypic analysis showed deletion of the short arm of chromosome 3(3p-) in 12 of 16 cell lines and trisomy 6 in 12 of 16 lines. In addition, translocations between chromosomes 9 and 11 or 9 and 12 were each present in five of 16 lines tested. The HNSCC lines were resistant to lysis by natural killer cells, but were efficiently lysed by lymphokine-activated killer cells, in 4-h 51Cr release assays.

These new lines have allowed us to establish a model of local adoptive immunotherapy of HNSCC in tumor-bearing nude mice, and they provide a resource for future studies of the biology of HNSCC.

— 19 —

두경부 편평상피암 환자에서의 SCC 항원의 의의

원자력병원 이비이후과

박혁동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SCC 항원이란 1977년 Kato와 Torigoe가 자궁경부 편평상피암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TA-4 항원의 subfraction이며 glycoprotein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평상피암에 대한 특이도가 높은 암 표지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정량 분석은 환자의 혈청에서 항원을 추출 및 순화시켜 나올 수 있는 위양성률이 낮고 다른 암 표지자와 같이 사용할때 민감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저자들은 1988년 - 1991년 기간 동안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두경부 편평상피암 환자중 408명(검사 ; 586건)의 혈중 SCC 항원을 측정하였고 남녀 모두 2.0ng/ml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고 통계 분석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료전 편평상피암 환자 전체의 SCC 항원 양성률은 224명중 35.7%이었다. 암발생 부위별 양성률을 보면 하인두 28명중 50.0%, 비강 및 부비동 16명중 50.0%, 구인두 32명중 43.8%, 구순 및 구강 34명중 35.3%, 원발 부위 미상의 전이성 경부암 12명중 33.3% 순이었고 후두, 식도, 비인두는 비교적 낮은 양성률을 보였다.

2) 치료전 임상적 병기별 양성률은 I기 9명중 22.2%, II기 35명중 23.8%, III기 58명중 34.6%, IV기 122명중 42.6%이었는데 특이할 사항은 국소 임파절보다는 원발암의 병기에 따라 양성률의 차이를 보였다.

3) 치료전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따른 양성률은 고도로 분화된 암 40명중 62.5%, 중등도의 분화암 119명중 21.3%, 분화가 잘 안된 암 41명중 29.3%, 미분화암 12명중 25.0%, 원발 부위 미상의 전이성 편평상피암 12명중 33.3%이었다.

4)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과 같은 치료후에는 전체 양성률이 7.1%로 떨어졌으며 이때 양성률을 보인 대부분이 암의 잔존 및 재발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였다. 암의 잔존 및 재발시 양성률은 89.5%이었다.

5) 치료후 SCC 항원의 혈청 농도가 변하는 양상은 수술후 1주일내 급격히 떨어진 뒤 서서히 감소했고 방사선 치료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줄었으며 항암 화학요법후 계속 서서히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CC 항원은 두경부 편평상피암 환자에 있어서 치료의 효과 및 예후 판정과 암의 잔존 및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20 —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한국인 비인강암에서의 Epstein-Barr Virus의 검출

한국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용식 · 김광현*

비인강암은 발생빈도에 있어 지역적, 인종적